2026년 국제 추수 감사절 섞임 특별 집회 표어

아가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의 생활을 시적인 형태로
놀랍고도 생생하게 묘사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도록
개인적인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통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체험하는지를 밝혀 준다.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구애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그분과 개인적이고 다정하고 내밀하고 영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그분의 표현을 위해 신성하게 됨으로써 그분께 구애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이들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기는 이들이 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은 몸의 원칙 안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지할 데 없어 그분만 신뢰하는
더 약한 이들일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를 개인적으로 들어야 한다.
그분께서 매일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어,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실 수 있게 한다 —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아 8:13)

"그분께서 오실 때 믿음은 사실로 바뀌고 찬양은 기도를 대신할 것이다.
사랑은 그늘 없는 온전함으로 완결될 것이고, 우리는 죄 없는 영역에서 그분을 섬길 것이다.
그날은 얼마나 놀라운 날이겠는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워치만 니)

© 2026 Living Stream Ministry

2026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국제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아가에 묘사된 이기는 생활

메시지 1

아가의 첫 번째 단계 —
만족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도록 이끌림

성경: 아 1:1–2:7, 요 14:21, 23, 21:15–17

Ⅰ. '솔로몬의 아가'는 그리스도의 연인의 영적인 역사를 시적인 표현과 단어와 어구로 서술해 준다. 아가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의 생활을 시적인 형태로 놀랍고도 생생하게 묘사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도록 개인적인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통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체험하는지를 밝혀 준다 — 아 1:1, 계 19:7, 비교 왕상 4:32.

A. 아가는 전도서와 대조된다.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모든 긍정적인 체험과 부정적인 체험이 '허무 중의 허무'라는 것을 보여 준다 — 전 1:2–3.

B. 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인생에서 노래 중의 노래, 만족 중의 만족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것은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허무 중의 허무라는 것과 대조된다.

C. 어떤 것이 아무리 좋고 뛰어나고 놀랍고 경이로울지라도 그것이 옛 창조물에 속한 것인 한, '해 아래' 있는 허무 중의 허무의 일부이며 '바람을 잡는 것'(전 1:14)이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인간 삶의 영역이 비참한 종말을 맞는 타락한 사람을 두고 부르는 만가와 같다는 것이다.

D. '해 아래' 있지 않고 하늘들에 있는 새 창조물만이 허무가 아니라 실재이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뿐이다' — 갈 6:15.

1. 옛 창조물에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믿는 이들로 구성된 새 창조물에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다 — 고후 5:17, 요 3:15, 벧후 1:4.
2.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골 3:1)라고 격려하였으며,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2절)라고 격려하였다.

E.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사람 안에 영을 지어 주심으로 사람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담을 수 있게 하셨다(창 1:26, 2:7). 또한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두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영원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해 아래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대대로 운행하는 신성하게 심어진 일종의 목적 있는 감각'(3:11, 확대역 성경)이다.

1.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을 거둘 때마다 우리 안에서 공허함이 느껴진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사람 안에 영원한 것들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가리킨다.
2.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안에 그러한 것들을 찾는 열망을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다 — 비교 행 17:26–27.
3. 인생에서 거둔 어떤 성공이든 그 모든 누림에는 끝이 있을 것이다. 육신의 생명에 속한 온갖 물질적인 것들에는 '끝 날'이 있다 — 요 7:37.
4. 일시적인 것들로는 결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곧 노래 중의 노래이신 그리스도로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목적의식을 만족시킬 수 있다 — 고후 4:18.

Ⅱ.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영적인 원칙이 아가에 나오는 추구하는 이의 이기는 생활의 첫 번째 단계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후에 나오는 공과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의 공과들이 더 깊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 아 1:2-2:7.

A. 거듭남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 안으로 가져온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은 이 유전자 안에 있다 — 요일 3:9, 막 4:26.

B. 원칙적으로, 아가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높은 요점들은 이미 우리의 것인데, 이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유전자이자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미 우리 안으로 분배되었고 우리 안에서 자랄 것이다 — 롬 8:10, 골 2:19.

Ⅲ. 생명은 인격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 인격을 누리는 다른 길이 없다 — 막 12:30, 고전 2:9.

A. 우리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여 온종일 그분을 생명나무로 누린다면, 교회는 그 상태가 어떠하든 즉시 우리에게 낙원이 된다 — 계 2:4, 7, 고후 12:4과 각주 1, 눅 23:42-43.

B.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은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많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그분의 현재의 임재, 현재의 인격이 필요하다. 우리의 주 예수님은 '지금 분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 요 8:12, 빌 3:13-14.

C.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은 아들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오셔서 아들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1.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며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교통을 나누며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음을 뜻한다.
2.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들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곧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실재가 되게 하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신다 — 비교 고전 2:9-12.

D. 각 사람의 경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의 인격에 대한 이상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상이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 — 행 26:14-19, 고후 4:6-7, 빌 3:8-10상, 13, 비교 신 4:25.

Ⅳ.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개인적이어야 한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아 1:4)라는 말은 개인적인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개인적으로 이끌리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우리를 통해 주님께 이끌릴 것이다 (렘 31:3, 비교 고후 11:2).

A. 우리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던 이들의 본을 따라야 한다.

1. 우리는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갈망을 위한 하나님의 친구였다 — 대하 20:7, 사 41:8, 약 2:23, 창 18:1-33.
2. 우리는 모세의 본을 따라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가졌고 하나님의 권익을 위한 하나님의 동반자였다 — 출 33:11-14.
3. 우리는 다윗과 아삽의 본을 따라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찾았다 — 시 27:4, 8, 80:3, 7, 14-19.
4. 우리는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으며, 매 순간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 행 10:38하, 요 8:29, 16:32.
5. 우리는 베드로의 본을 따라야 한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 자신의 타고난 힘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양을 목양했으며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랐다 — 요 21:15-19, 막 16:7.

6. 우리는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했다 — 고후 2:10, 5:9, 14-15, 20.

B. 주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는 주님을 가장 개인적인 방식으로 접촉하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갈망은 '입맞춤'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입맞춤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아무도 동시에 두 사람과 입맞춤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아 1:2.

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다정해야 한다. "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내게 입맞춤하는 것'은 다정한 것이다 — 아 1:2.

A. 시편 2편 12절은 "아들께 입 맞추어라. / … 그분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

1. 아들께로 피하는 것은 아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요 3:16, 36),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와 보호와 은신처로 삼는 것이다(시 18:1-2, 31:19-20, 34:8, 57:1, 71:1, 91:1-2, 4, 9, 118:8-9, 144:2, 잠 30:5).
2. 아들께 입맞춤하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 요 14:21, 23, 비교 시 91:14.
3.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1:12),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참여하기 위한 두 가지 요구 조건이다(고전 2:9, 비교 16:22).

B. 우리가 주님과 다정한 관계를 가질 때, 그분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분이 되신다 — 엡 3:8, 2:7, 롬 10:12-13.

1.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은혜는 우리의 어머니이다 — 롬 8:15-16, 갈 4:24-26, 사 66:12-13.
2.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 마 9:15, 고후 11:2.
3.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형님이시다 — 요 20:17, 롬 8:29.
4.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 마 11:19, 요 15:12-17.
5.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조언자이시다 — 사 9:6.
6.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시다 — 요일 2:1.
7.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시다 — 요 14:16, 15:26.
8.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 시 23:1, 벧전 2:25.

Ⅵ.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내밀해야 한다.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아 1:4하). 왕의 내실은 그리스도의 내실인 우리의 거듭난 영을 상징한다(딤후 4:22, 엡 3:16, 2:22).

A. 우리는 비밀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내밀하게 접촉하면서, 우리 전 존재를 그분께 열어서 그분의 빛 비춤과 주입을 받아들여야 한다 — 마 6:6.

B. 이 땅에서 최고의 직업은 하나님으로 빛나고 하나님을 비추어 낼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주입받는 것이다 — 출 33:11, 고후 3:16, 18, 4:1, 비교 마 14:23, 막 1:35, 눅 5:16, 6:12, 9:28.

C. 우리는 우리의 숨을 곳이자 거처이자 충족의 비결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 시 31:20, 27:5, 90:1, 91:1, 빌 4:13.

Ⅶ.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영적이어야 한다(아 1:4하).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의 영(왕의 내실) 안에 거하시며, 이 두 영은 한 영으로 함께 연합된다(요 4:24, 롬 8:16, 고전 6:17).

A.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를 방문하신다. 우리의 영은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자 모든 왕의 왕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내실인 지성소이다 — 고전 15:45하, 롬 8:16, 딤후 4:22.

B.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연합된 영을 사용해야 한다 — 고전 2:15과 각주 1, 엡 1:17, 2:22, 3:5, 16, 4:23, 5:18, 6:18.

Ⅷ. 주님과 우리의 개인적이고 다정하고 내밀하고 영적인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랑하게 하며, '연회장'(아 1:7-8, 2:4)인 교회생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변화시키시는 영에 의해 변화되고 교회생활 안에 있는 온전하게 하는 이들에 의해 온전하게 될 수 있다(엡 4:11-12).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이들(혹은 '변화시키는 이들')은 변화시키시는 영과 동역하여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공급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삼일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 우리의 미덕들이 되게 하여(아 1:10하-11)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함으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여(고전 3:12상, 계 21:18-21)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 2026 Living Stream Ministry

메시지 2

아가의 두 번째 단계 —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나도록 부름받음

성경: 아 2:8-3:5, 마 3:13-17, 21:32, 16:24

Ⅰ. 우리는 아가가 우리를 안내하여 솔로몬으로 예표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인식하게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A. 추구하는 연인의 추구의 첫 번째 단계는 그녀에게 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시해 준다. 반면에 그녀의 추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왕께서 중심이시며, 이제는 왕께서 그녀를 감상하시고 바라보시며 갈망하신다 — 아 2:14.

B.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계셨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 시편 45편은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한다면, 우리의 혀가 준비된 작가의 붓이 되어, 그분의 온 존재에 대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께 드릴 우리의 찬양을 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임을 계시한다 — 시 45:1, 마 12:34하, 고후 3:3, 6, 사 6:5-7.

Ⅱ. 아가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에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 부름받는다. '십자가'와 '자아'와 '자기 성찰'이라는 이러한 세 핵심 용어는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Ⅲ.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지금 그이가 오고 있어요, / 산들을 뛰어오르고 / 언덕들을 뛰어넘어. / 내 사랑하는 이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 같답니다. / 지금 그이가 우리 담 뒤에서 서성이며 / 창문들 틈으로 들여다보고 /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군요."(아 2:8-9)

A.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자기 성찰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그녀가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벗어나 담을 쌓고 은둔하게 만들었다 — 아 2:9.

B. 자기 성찰은 자아를 들여다보고 분석함으로써 자아를 살펴보는 것이다. 자아는 자기 성찰로 조성되어 있다 — 비교 고전 4:3-4.

C.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자아는 바라볼 가치가 없다 — 히 12:1-2상, 요 3:14-15, 12:31-32, 민 21:4-9.

D. 그분께서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산들을 뛰어오르시고 언덕들을 뛰어넘으시는 것은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의미한다. 부활 능력이신 그분은 산들을 뛰어오르시고 언덕들을 뛰어넘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 아 2:8-9.

E.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자기 성찰에 빠져 낙심하지만, 주님은 그녀를 봄철로 부르고 계신다 — 아 2:10-11, 비교 히 3:7-8, 요 8:58.

F. 그녀가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잠자는 겨울철이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그녀는 봄의 단계 곧 부활의 단계로 들어간다 — 아 2:10-13.

G. 승리의 비결은 결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우리 자신을 보거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아를 고찰하지 않는 것이다 — 히 12:1-2상.

Ⅳ. "바위틈에 있는, /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 주고 /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표정은 사랑스럽다오."(아 2:14)

A.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해 그분의 부활 능력으로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난다 — 아 2:14.

1. 그리스도는 그분의 비둘기 곧 그분을 추구하는 이가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안에, 즉 바위틈과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신 그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 — 아 2:14, 갈 2:20, 고전 15:31, 고후 4:10-11.
2. 그러나 십자가에 머무는 것은 마치 바위투성이 길을 따라 바위틈과 높은 산에 있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다.
3.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활 능력, 곧 산을 뛰어오르시고 언덕을 뛰어넘으시는 '새벽 암사슴'이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의한 것이다 — 시 22편 제목, 잠 4:18.
4. 그리스도는 그분의 연인을 강하게 하시고 격려하시어 일어나 자기 성찰이라는 낮은 상태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그녀에게 부활 능력(아 2:8-9)을 보여 주심으로써 그녀를 강하게 하시며 그분의 부활의 넘치는 풍성으로 그녀를 격려하신다(10-13절).
5. 그리스도의 연인들인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자아를 부인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써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 마 16:24, 빌 3:10, 롬 8:13.
6. 부활의 실재는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며(요 11:25), 이분은 완결되신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거듭난 영과 연합되셨다(롬 8:16, 고전 6:17).

B. 이러한 연합된 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을 체험함으로써, 이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하나 되어 자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된다.

V.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하며,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과 풍성이신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 고전 15:31, 36, 눅 9:23, 빌 3:10, 비교 호 6:1-3.

A. 우리는 시대의 이상과 사역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의의 길을 취해야 하며, 우리가 죽고 장사되기에만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열린 하늘과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마 3:13-17, 21:32, 비교 겔 3:1-3.

B. 우리는 교회생활을 위해 복합되신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죽음과 그 달콤한 효능,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부활과 그 내쫓는 능력을 누려야 한다 — 출 30:23-25, 롬 14:17-18, 비교 빌 1:19-21, 2:13, 3:10, 4:11-13.

C. 우리는 십자가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음식이다 — 마 26:39, 히 10:5-10, 요 4:34.

1. 하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진정한 하나를 갖기 위해 교회를 짊어지고 모든 성도들을 짊어지는 것이다 — 엡 4:1-3, 고전 1:10, 빌 2:2.
2. 신성한 영광 안에서의 하나는 우리가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아가 아닌 몸을 중심 삼을 때 실현된다 — 요 17:21-23, 고전 12:24-25.
3. 십자가는 우리의 외적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서는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다. 이 두 방면이 함께 협력하여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죽이고 부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개조한다 — 고후 4:10-12, 12:7-10, 13:3-4.

4. 몸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며, 주님을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분열을 일으키며 죽음을 퍼뜨리는 이들에게서 떠나는 것이다 — 골 3:12-15, 잠 25:15, 20, 26, 롬 15:7, 16:17, 민 6:6-7, 레 5:2.

D.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생활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누려야 한다 — 고전 1:9, 2:2, 15:45하, 58.

E.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먹음으로써 그분을 우리의 매일의 '항생제'로 취해야 한다 — 계 2:7, 벧전 2:24, 3:18, 요 6:57.

F.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한받으신 예수님을 밀의 땅으로 누리며, 부활하시고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보리의 땅으로 누려야 한다 — 신 8:8, 요 12:24, 6:9.

G.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반석으로 누려야 하는데, 그 길은 부활 안의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시고 흘려 보내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성소와 관련된 죄악에서 구원받는다 — 고전 10:4, 요 19:34, 출 17:6, 민 20:8, 18:1, 렘 2:13, 요 7:37-39, 겔 47:1, 계 22:1.

H.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우리의 은신처로,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으로 취해야 한다 — 아 2:14, 시 90:1, 91:1, 31:20, 83:3, 사 32:2, 출 33:22, 비교 마 6:6, 요 14:23.

I. 우리는 얽혀 있고 복잡한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수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 — 아 2:2, 왕상 7:17-20, 마 6:28.

J.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사탄의 체현이자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포한 혼인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 롬 1:9, 마 16:22-24.

K.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심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표현하시고 신성한 속성들을 인간 미덕들로 살아 내신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 우리의 모형이신 그분을 내재적으로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낙인을 지니는 것이다 — 요 5:30, 벧전 2:21, 갈 6:17-18.

L.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 빌 3:3, 살전 3:13, 고후 4:5, 고전 10:31, 비교 잠 25:28, 28:25-26, 29:23.

M.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고, 우리의 쓴 환경들과 쓴 내적 존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치료자이시자 치료하는 능력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 출 15:22-27, 벧전 2:24, 계 2:7, 마 9:12.

N. 우리는 죽이고 부활하게 하시는 생명의 영의 법의 '스위치를 올려', 계속해서 주님을 접촉하고 만지면서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분배 안에 머물러야 한다 — 롬 8:2, 10, 6, 11, 13.

Ⅵ. 우리가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난 결과는 부활 생명의 번성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며,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됨으로써 아름답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의식하고, 몸 안에서 몸을 통해 몸을 위해 사는 것이다 — 빌 3:10, 골 2:19, 롬 12:4-5, 15, 고전 12:12-27.

© 2026 Living Stream Ministry

메시지 3

아가의 세 번째 단계 —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승천 안에 살도록 부름받음

성경: 아 3:6–5:1

Ⅰ. 그리스도의 연인의 체험의 세 번째 단계는 승천 안에 살도록 부름받아,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인 그리스도의 아름답게 된 연인이 되는 것이다 — 아 3:6–5:1.

Ⅱ.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갑시다. /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 사자들의 굴에서, / 표범들의 산에서 바라봅시다."(아 4:8)

A.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에 머물도록 그분의 연인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분과 함께 승천 안에 살도록 그녀를 부르신다 — 아 2:14.

1.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레바논)에서, 즉 진리(아마나)의 가장 높은 지점과 그리스도의 싸움에서의 승리('부드러운 갑옷'을 의미하는 스닐과 '멸망'을 의미하는 헤르몬)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원수들의 처소(사자들의 굴과 표범들의 산)에서 그분과 함께 바라보자고 그분의 신부인 연인에게 요청하신다.
2. 그리스도의 연인이 승천 안에 살고 있을 때, 그녀와 그리스도는 승천이라는 한 상태 안에서 살고 있는 한 쌍의 부부이다. 그들은 생명과 본성에서 동일하며 완전하게 서로 어울린다.

B. 승천 안에 사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영 안에 살 때, 우리는 하늘들에 계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 엡 2:22, 창 28:12–17, 요 1:51, 계 4:1–2, 히 4:12, 16.

C.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에 숨기를, 다시 말하면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숨기를 배워서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한다 — 시 91:1, 14–16, 비교 아 2:14.

1.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한 체험이다 — 시 90:1–2.
2.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 일생이 짧고 죄들과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 시 90:3–12.
3.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매 순간 그분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 밖에는 죄들과 고통뿐이기 때문이다 — 시 90:8, 요 16:33.
4.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인 우리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의 영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입받아, 아름답게 된 새 창조물이 된다 — 엡 2:22, 롬 8:6, 시 27:4, 사 60:7하, 19하, 62:3, 아 3:11, 잠 12:4상.

Ⅲ. "솔로몬왕이 자신을 위해 /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네. / 그 기둥들은 은으로, / 바닥은 금으로, 자리는 자주색으로 만들었는데 / 그 한가운데는 예루살렘 딸들의 / 사랑이 아로새겨져 있었다네." (아 3:9–10)

A.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위해 그리스도의 탈것, 그리스도의 '자동차'인 그리스도의 움직이는 그릇이 된다 — 비교 고후 2:12–17.

B.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으로 재건축되어,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한 인성이 우리의 외부 골격이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내부 장식이 된다 — 아 3:9–10.

1. 솔로몬, 곧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그분 자신을 위한 가마로 만드신다. 우리의 책임은 다만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드리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 요 21:15–17, 시 110:3.

2. 우리의 내적 존재에 '사랑이 아로새겨져야' 한다(아 3:10).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성으로 지니는 영역 안에 지켜질 것이고, 우리의 인성은 강권하는 그분의 애정 안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 고후 5:14.

C. 우리가 개인적이고 다정하며 내밀하고 영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타고난 존재가 허물어지고,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은으로 만든 기둥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받침대)과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생명 주시는 영(자주색 자리)으로 개조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 영의 다스림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을 때 이루어진다 — 아 3:10, 비교 롬 8:28-29, 고후 4:16-18.

Ⅳ.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승천 안에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그분만의 동산이 된다 — 아 4:10-15.

A.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 그대의 관유 향기는 / 온갖 향료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 아 4:10.

1. 추구하는 이는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추구하는 이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배롭게 여기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다 알 수 없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도 그분께서 으뜸이시라는 것을 보여 준다 — 비교 아 1:2, 롬 8:37, 고후 5:14.
2. 추구하는 이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영으로 적셔지고, 그 영께 복종함으로써 그 영에 의해 빚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 아 4:10하, 11하, 요 12:3, 고후 2:15.

B.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 아 4:11상.

1.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 이 둘의 연합인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두 방면, 곧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이다 — 신 8:8, 32:13-14, 요 1:29, 12:24, 마 26:26-28.
2. 특별히 우리가 영이 약하여 주님을 체험하고 적용하려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께서 젖과 꿀이시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과 달콤함을 느끼게 된다 — 고후 12:9-10.
3. 꿀은 상처받은 이들을 회복하고, 젖은 새로 태어난 이들을 먹인다. 추구하는 이는 자기 안에 매우 많은 풍성을 저장하여 마치 혀 밑에 양식을 간직한 것 같으며, 어느 때에나 궁핍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할 수 있다 — 사 50:4, 엡 4:29, 시 45:1-2.
4. 이러한 달콤함은 하룻밤 사이에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모으고 내적으로 활동하며 주의 깊게 저장한 데서 온다 — 비교 출 29:30, 시 92:13-14.

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 / 덮인 우물, 봉해진 샘. / … 그대는 동산들의 샘, / 생수의 우물, /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라오."(아 4:12, 15)

A. 주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는 자신의 영적 진보의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만의 만족을 위한 동산이 되었다. 그녀는 열린 동산이 아니라 잠긴 동산, 봉해진 동산이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그녀가 사랑하는 분의 기쁨을 위한 것일 뿐 다른 어떤 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1. 믿는 이들이 자신을 조금 더 잠그고 조금 더 단단히 봉한다면, 그들의 일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은밀하게' 감추어진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서 더 깊은 일을 하시기 바란다 — 마 6:6, 13:20-21.
2. 교회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깊은 생활, 곧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생활이다 — 사 37:31.

B.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창 2:8) 성경에 따르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생각하신 것이었다.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즐겁고 만족하며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셨음을 가리킨다.

C. 교회생활은 하나님의 동산 곧 하나님의 농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풍성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게 한다 — 창 2:8, 골 1:10, 2:19, 고전 3:9, 계 22:1-2, 비교 출 25:31-32.

D. 하나님은 사람을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 창 2:15.

1. 사람이 땅을 일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의 첫째 방면,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이 자라도록, 특별히 생명나무가 자라도록 하는 것이다. 땅을 일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자라실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이다 — 창 1:26상, 마 13:3-23.
2. 사람이 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의 둘째 방면, 즉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여 사탄을 처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동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땅을 지키는 것은 지식나무 곧 죽음의 나무인 사탄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 창 1:26하, 고후 5:4, 11:3, 고전 15:26, 비교 레 5:2.

E. 우리는 그리스도의 누림과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누린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서 나온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다 — 아 1:12-14, 4:12-14, 5:1.

F. 이 동산에는 샘(곧 원천)과 생수의 우물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샘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우물이시며, 영 하나님은 흐르는 시내들이시다. 이로써 우리는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누림으로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 — 아 4:15, 요 4:14하.

G. "북풍아, 깨어나라. / 남풍아, 오너라. / 나의 동산에 불어서 / 그 향기를 날려" — 아 4:16상.

1. (차갑고, 혹독하고, 매섭고, 견디기 힘든) 북풍과 (따뜻하고, 부드럽고, 상쾌하고, 유쾌한) 남풍은 주님께서 믿는 이들이 그분을 충족함의 비결로 누리도록 훈련하는 데 사용하시는 두 가지 다른 환경이다 — 빌 4:11-13, 5-7, 1:20.
2.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모든 문제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는다. 추구하는 이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영으로 충만한 한, 어떤 환경에서든 기쁘게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 2026 Living Stream Ministry

메시지 4

아가의 네 번째 단계 — 부활 후에 십자가를 통해 휘장 안에서 살도록 더 강하게 부름받음

성경: 아 6:4상, 13

Ⅰ. 그리스도의 연인은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사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 안에서 성숙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께 동산이 될 뿐 아니라(아 4:12-5:1, 6:2) 디르사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보호처 곧 그 성소의 보호처가 된다(아 6:4상).

A. 왕은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만큼이나 아름답고 /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라고 선포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의 아름다움을 칭송한다 — 아 6:4상.

B. 이스라엘의 왕도(王都)이며 왕궁이 있는 곳인 디르사(왕상 14:17, 15:21, 16:23)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소 곧 왕이신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언급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이며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의 보호처이다.

C. 구약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은 디르사와 예루살렘으로 예표되었고, 신약에서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또한 그리스도의 아내(엡 5:25-32, 비교 창 2:22)인데, 궁극적으로 이 유기적인 몸의 건축은 지성소의 완결인 거룩한 성, 곧 영원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상호 거처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계 21:2-3, 16, 22).

Ⅱ. 그리스도께 동산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요소 안에서 이 생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번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성숙에 이르도록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연관되어) 건축되는 것이다 — 엡 3:8, 4:12-16.

A. 하나님의 성소는 하늘들에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표징하는 휘장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뉜다 — 히 10:19-20.

B.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휘장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찢어졌으나(마 27:51), 믿는 이들과 관련하여 그 휘장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다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C.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탄의 전달자를 통하여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게 하심으로써 그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하셨다 — 고후 12:7.

D.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먼저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며(요 3:6, 롬 8:10, 벧전 1:3), 그런 다음 그리스도와 그분의 풍성을 우리의 새로운 요소로 우리 존재 안으로 가져오시고 우리의 낡은 타고난 요소를 점차 배출하시는 내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에 의해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신다(고후 3:18, 롬 8:2).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이다(빌 3:21, 롬 8:23).

Ⅲ.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물로서 그분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도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는 보다 분명한 십자가의 체험을 통하여 휘장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궁극적인 부름이 여전히 필요하다.

---

* 'sanctuary', '거룩한 곳'이라는 뜻으로 성전 전체를 의미함—역자 주

A. 그리스도의 연인이 아가의 첫 번째 단계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여 만족을 얻은 후에, 주님은 자기 성찰에 갇혀 있는 그녀가 그분의 십자가를 체험함으로써 자아에서 나오도록 그녀를 첫 번째로 부르셨다. 그런 다음 주님은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로서 그분의 승천 안에 살도록 그녀를 다시 한번 부르셨다. 이제 주님은 그녀가 휘장 안에서 곧 하나님 자신인 지성소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로 체현되신 완결되신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녀를 최종적으로 부르신다 — 비교 히 10:22.

1.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고 영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한, 즉 우리의 몸이 아직 변형되지 않은 한(롬 8:23, 빌 3:21), 우리는 여전히 휘장인 육체를 갖고 있다.
2. 우리가 휘장 안에, 곧 지성소 안에 살려면 매일 십자가의 처리를 체험함으로써 휘장을 통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 고전 15:31, 눅 9:23.
3.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성소가 된다. 참술람미로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복사판과 재생산이 된다 — 요일 5:20.
4. 지성소에 있는 궤 속에는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한 놀라운 세 항목이 있다.
   a. 금항아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만나는 모든 공급의 신성한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다 — 출 16:32-34, 계 2:17상.
   b. 싹 난 막대기는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신성한 삼일성의 셋 가운데 둘째 분은 부활이시다 — 민 17:1-11, 요 11:25.
   c. 율법의 돌판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내적인 법인 생명의 영의 법을 가리킨다(롬 8:2, 10). 생명의 영의 법은 언약의 돌판으로 상징된다(출 25:16, 31:18, 신 10:1-5, 렘 31:33).
   d.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엡 4:6), 아들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골 1:27, 고후 13:5),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롬 8:9)을 보아야 한다.
   e.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지성소 안에 거하고 계신다. 우리는 실지적인 지성소인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공급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부활이신 아들과 생명의 법이신 그 영을 만나게 된다.

B.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은 지성소 안에, 곧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안에 살면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가장 충만한 정도로 누린다. 이것이 아가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연인의 체험 중 가장 높은 단계이다.

Ⅳ. 궁극적으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형상이 되어 놀라운 술람미가 된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복사판으로서 그리스도의 배필인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상징이다 — 아 6:13, 계 21:2, 9-10, 22:17상.

A. 솔로몬왕이 시골 사람이 되어 시골 소녀에게 구애함으로 그녀를 자신의 왕비, 자신의 복사판이 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시어 사람에게 구애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배필로 삼으려고 하셨다 — 마 9:15, 계 19:7, 비교 시 45:1-3, 9, 13-14.

B.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구애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그분과 개인적이고 다정하고 내밀하고 영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그분의 표현을 위해 신성하게 됨으로써 그분께 구애하기를 원하신다 — 전 1:2, 아 1:1-8, 비교 고후 2:10, 출 33:11, 롬 8:4, 6, 고전 2:15.

C.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이다. 이것은 이제 이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D.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술람미는 춤추는 두 진영 혹은 두 군대(히브리어로 '마하나임'임)에 비유된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 곧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본 후에 자신이 있던 장소를 마하나임이라 불렀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소유를 '두 군대'로 나누었다 — 아 6:13, 창 32:1-2.

1.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고,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 창 32:1-2.
2. 야곱은 하나님의 두 군대인 천사들을 보았을 때,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소유를 두 무리 혹은 '두 군대'로 나누었다. 이것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들이며 강한 증거를 지니고 있음을 가리킨다 — 창 32:7.
3.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거인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연약한 이들, 더 약한 이들,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 고후 11:29, 롬 9:16.
4.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이들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기는 이들이 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은 몸의 원칙 안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더 약한 이들일 것이다 — 고전 1:26-28, 고후 11:29, 12:9-10, 13:3-5, 계 3:8, 벧전 5:5, 신 32:30, 전 4:9-12, 롬 9:16, 16:20.
5. 두 군대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원칙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을 통해 넉넉히 이기는 이들임을 보여 주는 강한 증거라는 것이다 — 롬 8:37, 12:5, 신 32:30, 전 4:9-12.
6. 하나님은 그분과 하나인 백성, 곧 땋은 머리로 상징된 것처럼(아 1:11) 그분께 복종하고, 보석 꿰미들로 꾸며진 목으로 상징된 것처럼(10절) 유연한 의지로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이 필요하시다.
7.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어떻게 도달할지를 고려할 때,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를 긍휼과 존귀와 영광의 그릇들로 만드시는 사랑과 능력과 긍휼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 롬 9:16, 21-23, 아 8:5-6.

© 2026 Living Stream Ministry

메시지 5

아가의 다섯 번째 단계 — 주님의 일에 동참함

성경: 아 7:1–5, 11–12

Ⅰ. 솔로몬은 많은 포도원의 주인이고(아 7:12), 이 포도원들을 가꾸는 데에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술람미는 마땅히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특권과 영광인가(고전 3:9, 고후 6:1상)!

Ⅱ. 주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 미덕들로 표현되는 신성한 생명의 모든 속성들로 장비되는 데 달려 있다. 그 영은 연인의 미덕들을 살펴보시는데, 이 미덕들은 그녀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했다는 표시이며 그녀에게 주님과 함께 일할 자격을 준다 — 아 7:1–5, 비교 고후 1:12, 2:14–17, 11:10상, 살전 2:1–12.

A. 하나님의 유일한 일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분 자신을 그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 갈 4:19, 엡 3:17상, 4:16.

1. 우리는 우리라는 사람의 어떠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바울은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말한다. 바울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 그리스도로 조성된 사람이었다 — 고전 15:10상.
2. 그 결과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 고전 15:10하.
3.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사도 안에서 운행했던 은혜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인격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사도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모든 것이 되셨다.
4.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여 그들의 누림이 되게 함으로써 교회가 건축되게 하는 것이었다 — 엡 3:2.

B. 아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는 '통치자의 딸'(7:1)로 불린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인이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의의 선물을 통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그분의 왕의 생명 안에서 성숙에 이르러야 함을 보여 준다(롬 5:17).

C. 그 영은 복음 전파(신을 신은 걸음걸이)의 아름다움을 살펴보신다 — 아 7:1, 롬 10:15.

1. 복음 전파는 땅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준다.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는 것'은 교회가 착용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한 부분이다 — 엡 6:13, 15.
2.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셨다. 이 화평은 우리의 복음이 되었다(엡 2:13–17). 이 화평의 복음은 견고한 기초로 세워졌고, 이 견고한 기초는 우리 발에 신을 수 있게 예비된 것이다.
3. 이렇게 신을 신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 서 있을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견고한 기초를 위한 화평은 그리스도이다 — 엡 6:14.

D.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에 관하여 "네 목은 상아 망대 같고"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의 예표에서 상아는 부활 생명을 상징한다. 따라서 그녀의 의지를 상징하는 그녀의 목은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다 — 아 7:4.

E. 이어서 주님은 그녀의 눈에 대해 말씀하신다. "네 눈은 바드랍빔 성문 가에 있는 / 헤스본 연못 같으며" — 아 7:4.

1. 아가 1장 15절에서 그녀의 눈은 비둘기의 눈에 비유되었지만, 7장 4절에서 그녀의 눈은 연못에 비유된다. 비둘기의 눈은 영적이지만, 연못 같은 눈은 빛을 향해 활짝 열려 있으며 온 우주를 볼 수 있을 만큼 커지고 넓어졌다.
2. 이 연못은 성문 가에 있다. 성문은 들어오고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교통을 위한 소통을 상징한다. 이러한 소통을 갖는 것은 우리의 넓혀진 시야에 달려 있다. 이 연못은 반사하는 연못인데, 이것은 그녀의 시력에 빛이 가득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3. 우리의 이상은 반드시 매우 넓혀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의 일을 보고 돌볼 뿐 아니라, 온 땅과 온 우주에서의 주님의 권익을 돌볼 것이다.

F. 주님은 그녀의 '코가 레바논 망대 같다'고 하시며 그녀를 높이 평가하셨다 — 아 7:4.
1. 레바논 망대 같은 코는 주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에게 높고 예리한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빌립보서 1장 9절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리석게 사랑해서는 안 되며, 온전한 지식과 예민한 지각이 넘치는 사랑으로 분별력 있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 준다.
2. 냄새를 맡는 기능은 성숙한 이들에게서만 발견된다. 이 감각은 밖으로 한 말이나 보이는 것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이 기능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직감에서 오는 내적인 능력으로서 우리가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준다.
3. 이 영적인 직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식별은 이성이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도 내적인 정확한 느낌에 의한 것이다. 이 느낌에 의해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다.
4. 동시에 이 후각을 통해 우리는 나쁜 냄새도 식별할 수 있다. 많은 가르침이 틀린 것으로 간주될 수 없고, 많은 사람에게서 잘못된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는 무언가가 빗나갔다는 것을 감지한다.
5. 우리는 주님의 종에게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즉시 무언가가 잘못되었고 참되지 않으며 주님과 조화되지 않음을 느낀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다.
6. 레바논 망대 같은 코는 코의 높이와 예리함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코가 일그러져 있거나 납작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에서 감지력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때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자격을 잃게 된다 — 아 7:4, 레 21:18(1901년판 미국 표준역 성경 참조).
7. 어떤 결함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자격을 잃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결핍되어 있다면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레 21:17-21.

G. 그 영은 하나님을 위해 강한(갈멜산, 비교 왕상 18:19-39) 연인의 생각과 의도(머리)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자줏빛)을 위하고 왕이신 사랑하는 분을 사로잡는(매이는구나) 그녀의 헌신을 위한 복종과 순종(그녀 머리의 머리채, 비교 민 6:5상)의 아름다움을 살펴보신다(아 7:5).

Ⅲ. "오세요, 내 사랑하는 이여, 우리 함께 들로 나가 / 마을들에서 묵어요. / 우리 일찍 일어나 포도원들로 가서 / 포도나무 움이 돋았는지 / 꽃망울이 터졌는지 /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아요. / 거기서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바칠게요."(아 7:11-12)

A. "마을들에서 묵어요." — '마을들'은 복수이다. 그녀는 한 곳에 제한되지 않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시는 주님의 체류하는 본성을 완전히 취했다. 그녀는 주님을 따라 잃어버린 양들과 상처 입은 이들을 찾아다닌다.

B. 그리스도의 연인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이곳저곳에 머물며(마을들에서 묵음) 온 세상('들')을 위한 일을 수행하기 원한다. 이것은 그녀가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종파적인 사람이 아님을 가리킨다. 그녀는 일을 공개해 다른 이들이 그곳에 와서 머물 수 있게 하고 또 그녀도 다른 곳에 가서 머물 수 있다. 이것이 한 몸 안에서 한 일을 지키는 것이다.

C. '일찍'은 그녀가 주님의 일에서 부지런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침 일찍 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게으름은 주님의 생명의 특징이 아니다. 참으로 영적인 이들만이 부지런할 수 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는 시간을 쓰는 데서 나타난다 — 엡 5:16, 골 4:5.

D.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단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고전 3:9상, 고후 6:1상). 주님과 함께 일하려면, 우리는 생명이 성숙해야 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일이 반드시 그분의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E. 술람미는 솔로몬의 배필로서 일하며, 모든 포도원(아 8:11) 곧 온 땅에 있는 교회들과 믿는 이들을 돌본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단지 한 도시만을 위하지 않고 몸을 위해야 함을 보여 준다.

F. 우리는 반드시 온 세상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바울은 각 지방에 교회들을 세우고서 그리스도의 몸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그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섞이는 생활 안으로 이끎으로써 그러한 일을 하였다 — 롬 16:1-27, 고전 12:24-25상.

G. 연인과 그녀가 사랑하는 분은 교회들(포도원들) 안에서 다른 믿는 이들이 움이 돋고, 꽃망울이 터지고, 꽃이 피도록 부지런히 일한다. 주님의 연인은 주님의 일 가운데서 "거기서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바칠게요."라고 말한다 — 비교 아 7:12.

H. 우리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일하고자 한다면, 그분의 일을 하는 곳에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 막 12:30.

Ⅳ. 첫째가는 일은 첫째가는 사랑에서 나오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다(계 2:4-5).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째가는 사랑으로 충만하여(계 2:4)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릴 때(골 1:18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나오고 그 사랑을 표현한다(요 21:15-17, 엡 4:16, 고후 5:14-15, 20).

A. 어떤 믿는 이가 일을 시작할 때, 그는 자신이 이전에 했던 외적인 일의 공허함에서 구출받아야 한다. 그는 단지 사람이 자신에게 맡긴 일을 했을 뿐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 주신 일은 하지 않았다 — 아 1:6하-8.

B. 믿는 이가 자아에서 구출될 때, 그의 마음은 개인주의적인 일에서 구출되어 주님의 일로 이끌리며, 모든 성도들의 상태와 심지어 가장 미성숙한 믿는 이들의 상태도 그의 관심을 끌며 그가 주목하는 대상이 된다.

C.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는 주님의 일을 주님 자신과 연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일을 통해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D. 그녀의 모든 수고는 '사랑의 수고'(살전 1:3)이다. 이러한 수고는 그녀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요일 4:19, 롬 5:5).

Ⅴ. "내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고전 15:58)

A. 오직 주님에 대한 첫째가는 사랑에 의해 유발된 이러한 일들만이 금과 은과 보석이다 — 고전 3:12.

B. 주님의 일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타고난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 생명과 부활 능력에 의한 것이다.

C. 이렇게 수고할 때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며,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게 될 것이다 — 고전 3:12.

© 2026 Living Stream Ministry

메시지 6

아가의 여섯 번째 단계 — 휴거되기를 소망함

성경: 아 8:1–7, 13–14

Ⅰ. 그리스도의 연인은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됨으로써, 육체가 있다는 것 외에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정도로 성숙된다. 그녀는 육체 때문에 탄식하는 데서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녀가 몸의 구속을 통하여 휴거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아 8:1–4, 롬 8:23, 고후 5:1–8, 엡 4:30하, 빌 3:21.

Ⅱ.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아 8:5상)

A. 이전에 혼자 힘으로 영적인 광야(세상적인 환경)에서 올라왔던(아 3:6) 그리스도의 연인은 이제 사랑하는 분께 기대어, 의지할 데 없어 그분만 신뢰하며 육체에 속한 광야(땅에 속한 영역)에서 올라온다.

1.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라는 말은 그녀가 자신이 무력하여 주님을 떠나서는 걸을 수도 없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녀는 사랑하는 분께서 지고 가셔야 하는 짐이 되었다 — 고후 12:9–10, 13:3–4.
2.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라는 말은 야곱과 같이 그녀도 엉덩이뼈가 주님에 의해 만져져서 타고난 힘이 처리받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 창 32:24–25.
3.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라는 말은 그녀가 극심한 압박에 처해 있는 듯하고 광야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그 압박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 고후 1:8–9.
4. 주님을 신뢰하는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성령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 올라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감탄하며 외치실 때까지, 의지할 데 없어 그분만 신뢰해야 한다.
   a. "백성들아!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 그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 시 62:8.
   b. "주님을 신뢰하오니 / 아침에 주님의 자애를 듣게 해 주십시오. / 주님 향하여 제 혼을 높이 드오니 /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 시 143:8.
   c.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들은 /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시온산 같아라." — 시 125:1, 시온산에 관하여 시 48:2 각주 1 참조.

B. 그녀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만나러 그분과 함께 나가고 있다(비교 마 25:1). 우리는 사랑하는 분께 기댐으로써, 세상을 뒤에 두고 '나가는' 힘이 되시는 그분을 계속 누린다(창 5:22–24, 히 11:5–6).

Ⅲ. "나를 도장처럼 당신 마음에, / 도장처럼 당신 팔에 지녀 주세요. /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 질투는 스올만큼이나 잔인하니까요. / 그 불꽃들은 이글거리는 불꽃들, / 여호와의 불길이랍니다."(아 8:6)

A. 그녀는 사랑하는 분께 그분의 사랑(마음)과 그분의 힘(팔)으로 자신을 지켜 달라고 부탁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요동치 않는 죽음만큼이나 강하기 때문이며, 그분의 질투는 정복할 수 없는 스올만큼이나 잔인하기 때문이다. 스올은 질투하시는 여호와와 같다. 그분은 부정적인 모든 것을 불사르는, 태워 버리는 불이시다(신 4:24).

B. "그녀는 자신의 처음 상태를 회상할 때 겸손으로 가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이 비어 있고, 자신의 체험이 헛되며, 자신의 생각이 믿을 만하지 못하고, 자신이 추구한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뿐이다. 그녀는 자신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코 자신의 인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존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온전함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보존하시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나를 도장처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당신 팔에 지녀 주세요.'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은 사랑하는 곳이고, '팔'은 힘이 있는 곳이다. '저를 도장처럼 영원히 당신의 마음에 지녀 주시고, 도장처럼 지워지지 않도록 당신의 팔에 지녀 주십시오.

제사장들이 그들의 가슴과 어깨에 이스라엘 자손을 짊어졌듯이, 당신의 마음 안에서 저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당신의 팔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약하고 비어 있다는 것을 알며 제 자신의 무력함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자신을 보존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당신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고 자신에게 해만 줄 뿐입니다. 저의 모든 소망은 당신의 사랑과 능력에 있습니다. 전에 저는 당신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랑이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저는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바라볼 뿐입니다. 저는 이전에 당신을 붙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강한 것 같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있는 힘을 다해 붙잡는 것조차도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것은 저의 붙드는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붙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당신께 더 이상 저의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없고, 더 이상 제가 당신을 붙잡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은 당신의 힘과 당신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권, 노래 중의 노래, 6단락, 164-165쪽)

C. 그분의 사랑은 시련으로도 끌 수 없고, 박해로도 잠기게 할 수 없으며, 어떤 재산과도 바꿀 수 없다 — 아 8:7, 롬 8:35-39, 고전 13:1-3.

Ⅳ. 아가의 마지막 두 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재촉하고 그분을 모셔 오기 위해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는 데 매우 중요하다 —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여, /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아 8:13-14)

A. 그녀는 그분을 변화된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그녀의 벗들이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주님께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라고 간청한다.

B.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오늘 당신의 목소리를,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추구하는 이에게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비교 아 2:14)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고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는데, 이것은 친밀한 상호 교통을 위한 것이다.

C. 우리의 생활은 주님의 말씀에 달려 있고, 우리의 일은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의 연인인 우리는 사랑하는 분이신 그분을 위해 일할 때 항상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과의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D. 우리의 기도의 중심적인 요점은 주님의 말씀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 계 2:7, 사 50:4-5, 출 21:6.

E.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계시나 빛이나 지식도 없을 것이다. 믿는 이들의 생활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에 달려 있다.

F. 따라서 우리가 사무엘과 마리아처럼 듣는 이의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삼상 3:10)라고 말했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눅 10:39).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렇게 부르신다 —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계 2:7상)

G. 주님께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 관해 말하는 아가 8장 13절과 14절은 내재적으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와 연관된다. 에베소서의 이 절들은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요약해 준다.

1. 에베소서 5장 25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곧 우리를 사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 절은 그리스도께서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신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계시한다.

2.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6절은 그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절은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준비하시기 위해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심을 계시한다.
   a. 현재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고전 15:45하),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그분의 말씀 안에 체현되어 계신다(요 6:63, 엡 6:17-18, 딤후 3:16).
   b.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즉각적이고 현재적이며 살아 있는 개인적인 말씀으로서 신진대사적으로 낡은 것을 씻어 내고 새로운 것으로 대치하여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c. 우리는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 곧 그분께서 우리에게 매일 하시는 즉각적인 현재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한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내적이고도 신진대사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킨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이러한 씻는 과정 안에 있다.
3. 에베소서 5장 27절은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은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자기 앞에 세우시는 신랑이심을 계시한다.
   a. 그리스도는 과거에 우리의 구속자이셨고, 현재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 장래에는 신랑으로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배필이자 참술람미인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실 것이다 — 아 6:13.
   b. 주름은 우리의 늙음을 상징하고, 점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상징하며, '그 같은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창조물에 속한 모든 것을 상징한다.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물은 이것들을 씻어 내어 우리를 그분의 변화된 새 창조물 곧 술람미가 되게 한다.
   c. 그분께서 매일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어,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실 수 있게 한다 —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아 8:13)

Ⅴ. 시적인 책인 아가의 결론으로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사랑하는 분께 부활 능력(가젤과 젊은 수사슴) 안에서 속히 오셔서 온 땅을 가득 채울 그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왕국(향기 그윽한 산들)을 세우시기를 기도한다 — 아 8:14, 계 11:15, 단 2:35.

A. 주님은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사도 요한의 반응은 주님께 이 말씀을 다시 기도로 읽어 드리면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계 22:20)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마지막 기도이다. 성경 전체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기도로 끝맺는다.

B. 그러한 기도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연인 사이의 혼인의 사랑 안에서의 연결과 교감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연인인 요한의 기도가 성경의 결론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성한 사랑 안에 있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계시해 주는 것과 같다.

C. 사랑의 시인 아가에 따라 사랑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포이에마' 곧 하나님의 시가 되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누림인 은혜를 가져온다(엡 2:10).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며 삼일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궁극적인 술람미 곧 어린양의 아내로서 그분의 영원한 단체적인 표현이 되며 그분과 우리는 영원토록 서로 절대적인 만족과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계 22:21, 19:7, 21:9).

D. "그분께서 오실 때 믿음은 사실로 바뀌고 찬양은 기도를 대신할 것이다. 사랑은 그늘 없는 온전함으로 완결될 것이고, 우리는 죄 없는 영역에서 그분을 섬길 것이다. 그날은 얼마나 놀라운 날이겠는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권, 노래 중의 노래, 6단락, 174쪽)

© 2026 Living Stream Ministry